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따를 때 너희는 나에게 아첨하지 말고, 물러나서 나중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부열의 경계에서는 "나무가 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대의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리였다. 백세 동안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간언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의 치란과 흥망을 보려면 간언을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간언을 잘 듣는 자는 상벌을 잘 사용한다. 그래서 간언을 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고,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상국(上國)에는 간언이 없고, 그 다음은 간언을 사용하며, 그 다음은 간언을 용납하고, 그 다음은 간언을 벌한다. 신하로 하여금 간언할 것이 없어서 간언이 없는 경우는 만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고 그 말을 실행하게 하는 경우는 천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비록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용납하는 경우는 백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그를 벌하는 경우는 열에 열이다. 그래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세력과 이익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다.

간언을 잘 듣는 자는 간언하는 사람을 상주고,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상을 주는 데 천금을 아끼지 않고, 벌하는 데 다섯 가지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상은 이익의 창고이며, 형벌은 세력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익과 세력은 형벌과 상벌보다 큰 것이 없다. 따라서 사람은 위엄을 피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며,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간언이 이르게 되면 이를 상주고, 그러면 간언이 더욱 이르게 된다.

임금의 크기는 하늘과 같고, 그 존엄은 신과 같으며, 그 위엄은 천둥과 같다. 앞에는 이익이 없어 유혹할 수 없고, 뒤에는 세력이 없어 몰아칠 수 없다면, 누가 고통을 무릅쓰고 하늘을 거스르고 신을 거역하며 천둥을 맞서겠는가? 따라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간언의 길을 통하게 하려면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간언의 방식 중 직언은 임금이 듣든지 간에, 임금이 듣지 않든지 간에 해야 한다. 간언의 도리는 먼저 임금의 밝음을 얻고 나서 간언하면 안전하다. 임금의 밝음을 얻지 못하고 간언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윤과 부열은 직언하고도 안전했으며, 용봉과 비간은 직언하고도 위험했다. 이는 시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안전하면 간언하고, 위험하면 간언하지 않는 것은 시기에 따르는 것이다. 안전해도 간언하고, 위험해도 간언하는 것은 시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시기에 따라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는다. 시기에 따르지 않고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지 않는다.

상을 주고 간언하게 하는 것은 이익 때문이다. 형벌을 하고 간언하게 하는 것은 위엄 때문이다. 상을 추구하지 않고 형벌을 피하지 않고 간언하는 것은 성품 때문이다. 성품에 따른 것은 충의이다. 충의는 천금을 걸고 다가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칼과 툭

을 설치하여 위협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이 듣든지 간에 간언하고, 임금이 듣지 않든지 간에 간언하는 것이 직언의 도리이다.

그래서 ㉠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다.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바르지 않다. 그래서 간언을 잘 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 유한준, 「간언 中」 -

1.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라의 치란과 흥망은 군주의 간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 ② 간언하는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간언에 이르게 한다.
- ③ 성품을 쫓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강요된 간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안전하기 때문에 간언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간언은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 ⑤ 시기에 따라 위협해서 간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2. 밑줄의 ㉠와 <보기>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역사적으로 보면, 간언의 시기를 잘못 잡아 임금의 노여움을 사거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비간은 직언을 하다가 상(商)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하였다.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윤과 부열이 직언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냈던 사례는 시기의 적절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용봉과 비간은 시기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결과적으로 나라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 ① 간언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입장을 같이한다.
- ② 비간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와 견해를 같이한다.
- ③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같이한다.
- ④ 이윤과 부열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했던 반면, 용봉과 비간은 그렇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와 달리 나라의 치란과 흥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⑤ 비간이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했어도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요건을 간언의 여부로 간주한다.